

제품

KOMSA MAGAZINE

해양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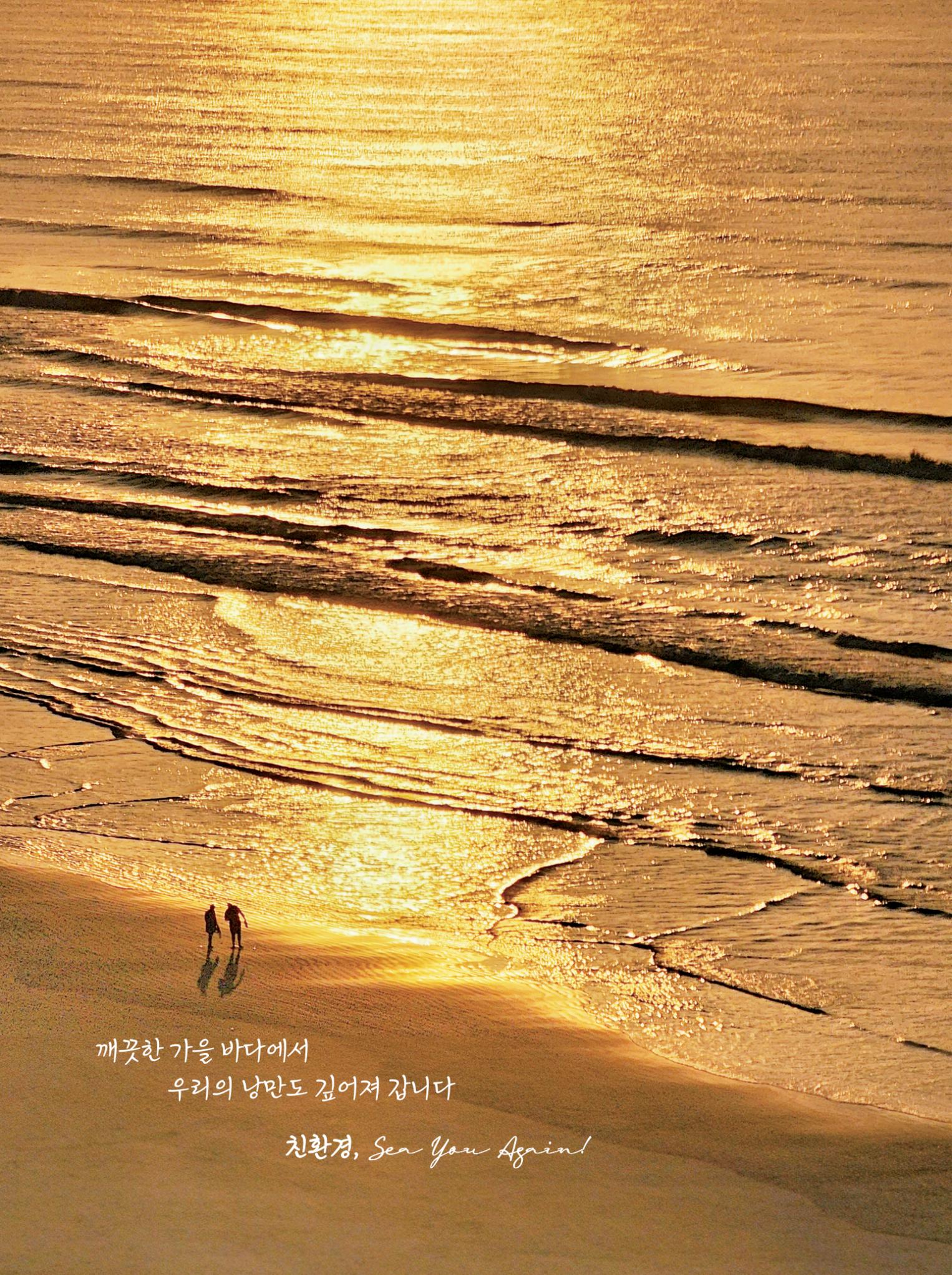
2024 Autumn Vol.59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4 Autumn | vol.59

친환경, See You Again!



깨끗한 가을 바다에서
우리의 낭만도 깊어져 갑니다

친환경, *Sea You Again!*

CONTENTS

VOL.59



해안선 웹진 바로가기

해맑은 바다 씨

04
바다의 인사
여수 바다에서
전하는 인사

08
바다 옆 골목
골목길 따라 가을 산책
남해독일마을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4년 9월 27일(통권 59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 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안전한 콤사 씨



16
친환경 콤사
친환경 선박에 대해
아시나요?

18
KOMSA 증인
'2024 한국해사주간'
성공리 개최

22
현장 속으로
여수지사&여수운항관리센터

28
칭찬이 트렌드
가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칭찬의 마법

30
주인공 나야 나
본사 해양안전실
허윤숙 주임연구원

신물인 문화 씨

34
어촌리 가다
여수 돌산도

40
바다말 이야기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대 이야기!

42
어시장 나들이
여수수산시장

46
싱싱한 식당
남해 미조식당

48
KOMSA 뉴스

49
KOMSA 네트워크

50
이벤트 안내

여수 바다의 아름다움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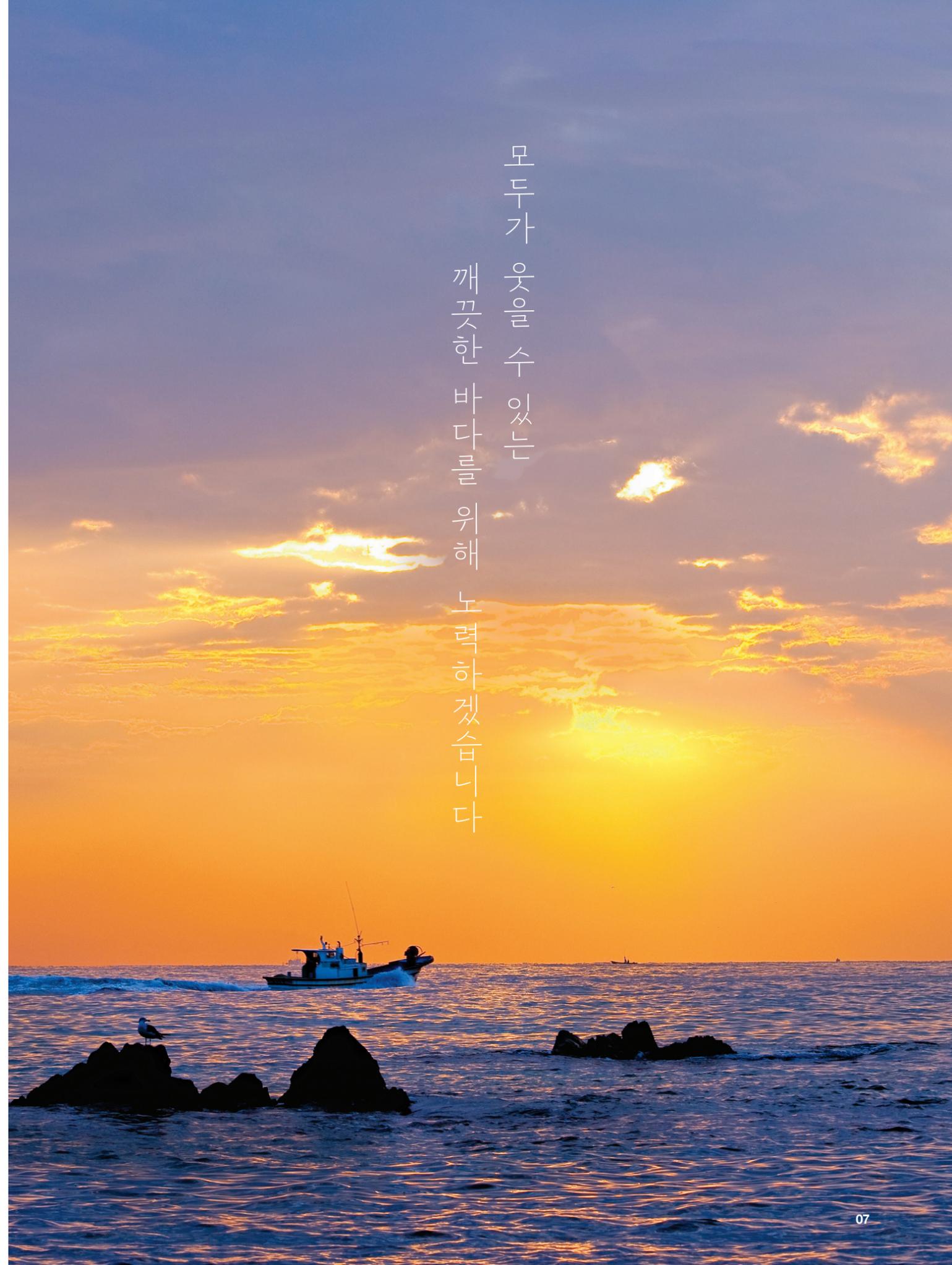


사람들은 여수의 바다를 두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해가 비출 때는 더없이 푸르고, 해 질 무렵에는 노을빛을 품어 낭만적이고, 밤이 되면 도심의 불빛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여수 KOMSA 사람들은 바빠 움직였습니다. 여수의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역어촌계와 협력해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를 즐겁게, 깨끗하게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실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서비스를 지원하고, 친환경 HDPE 소재 소형어선 보급, 친환경 공공선박 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 진단 장비를 개발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오로지 바다의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점점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다 생태계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이탈
관광지
의
이탈
관광지
의
이탈
관광지
의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남해.
하얀 외벽에 주황색 지붕으로 된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가게 문 틈으로 보이는
오크통과 목각 인형에 잠시,
고소한 소시지 향에 또다시, 발길을 멈췄다.
이국적이면서도 이색적인 광경!
어떤 이유에서
우리나라에 그것도 남쪽 끝에
독일식 건축물이 즐비하게 된 걸까.
독일인지 아닌지 착각이 드는 이곳에
발을 떼고 들어선 순간
그 낮섬에 빠져들었다.

NAMHAE

GERMAN
VILLAGE

이런 여행이 이런 여행이

이색적인 풍경의 남해독일마을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에 보물섬이라 불리는 남해. 푸른 바다만 기대했던 남해에서 또 다른 보물을 찾았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와 봉화리에 위치한 남해독일마을이다. 걸어서 두어 시간이면 볼 수 있는 크지 않은 마을인데도 낮은 풍경에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마치 유럽의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소품숍, 카페, 상점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고, 건물 사이사이 심어진 초록 나무와 그 틈으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꽃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 전체가 신비한 비밀의 화원 같기도 하고,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 정원 같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1960~7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독일로 떠나야 했던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는 낮은 땅에서 외롭고 고된 생활을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들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독일마을이다. 독일에서 직접 건축 재료를 공수해 전통 독일식 주택을 지어서인지 이국적인 작은 독일이 완성되었다. 주민이 직접 독일식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독일 소시지와 독일 맥주를 파는 레스토랑도 생겨났다.



Hallo!
Deutschland

여권 없이 독일 여행

골목 투어에 나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남해독일마을 핫한 장소들



NAMHAE
GERMAN VILLAGE
MAP

- 1 크란츠러카페
- 2 독일전통빵 달팡
- 3 독일집
- 4 남해파독전시관
- 5 원예예술촌



어서와~ 독일마을은 처음이지?



1

크란츠러카페

독일마을 일대는 특색 있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하다. 독일식 수제맥주 브루어리 투어가 가능한 양조장은 물론 독일식 튀김족발인 슈바인학센과 독일식 돈가스인 슈니첼 등 다양한 독일식 음식을 독일맥주와 함께 맛볼 수 있는 카페도 많다.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맛집을 꼽자면 크란츠러카페를 추천한다. 깊고 진한 독일맥주의 풍미를 즐길 수 있을 뿐더러 독일 소시지와 걸바속속 슈바인학센의 맛도 훌륭하다. 본관과 별관, 야외테라스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이 넓어 쾌적하다. 야외테라스에서 바라본 남해의 모습도 아름다우니 놓치지 말 것!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46

2

독일전통빵 달팡

독일마을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를 볼 수 있었던 곳, '달팡 베이커리'다. 달팡 베이커리는 100% 유기농 독일 밀가루, 100% 유기농 브라질 설탕, 100% 우유버터 등 엄선된 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브레첼을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 프레첼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독일의 국민 빵이다. 국내에서는 거의 과자 형태의 딱딱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달팡에서는 갓 구운 말랑말랑한 브레첼을 맛볼 수 있다. 매일 구워서 당일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니 담백하면서도 짭짤한 중독성 있는 브레첼을 원한다면 무조건 달팡이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35



3

독일집

입구에 있는 목각 인형에 시선이 멈춘다. 이름은 '도끼리!' 크고 작은 도끼리가 'Hallo' 인사를 건네며 여행자를 맞이해준다. 그저 인형을 파는 곳이겠거니 하는 생각과 달리 액세서리는 물론, 의류나 키링 등 없는 게 없다. 독일마을에 있는 가족전문점 바람레더 공방에서 만든 공간이어서 그런지 가족 제품도 많다. 공간이 예뻐서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파독 간호사가 살던 집을 고쳐서 꾸민 소품숍이라고 멋스러운 제품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72





4 남해파독전시관

파독전시관은 가난했던 시절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역사와 애환이 담긴 전시관으로, 2014년 6월에 개관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타임터널이 나오는데, 좁은 암흑 통로에서 들리는 곡괭이질 소리에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만 같다. 머나먼 타지에서, 그것도 지하 1,200m 갱도에서 일한 광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광부들의 삶을 담은 영상과 착암기, 램프 등의 작업도구와 작업복을 보면서 힘들었을 그들의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느껴본다. 코리아 엔젤이라고 불렸던 간호사의 손때 묻은 물품도 전시되어 있으니 독일마을을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 보자.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하는 날이니 미리 체크하고 갈 것.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89-7

5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위쪽에 자리 잡은 원예예술촌은 원예전문가들이 조성한 곳이다. 20여 세대가 각자의 개성을 담아 토피어리정원, 풍차정원, 풀꽃지붕정원, 채소정원 등을 언제 방문해도 좋을 만큼 아름답게 조성해 놨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이 잠시 쉬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뒀다. 프랑스풍의 정원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프렌치가든', 죽방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자스민', 배우 박원숙이 살던 집을 개조한 '박원숙 커피엔스토리',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우리마당 멀티숍' 등이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



독일마을 맥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 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모태로 기획된, 독일문화를 체험하고, 정통 독일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축제다.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오크통과 마차, 유럽풍의 전통의상, 곳곳에서 굽는 소시지와 독일식 족발 학센, 그리고 진한 독일맥주까지! 여권 없이 독일을 여행할 수 있으니, 특별한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독일마을로 가보자.

정통 독일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

COMING SOON



2024 OKTOBERFEST

<https://nhgvbf.com/>

친환경 선박에 대해 아시나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노력 중 하나인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친환경 선박의 정의 및 종류

친환경 선박이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등을 적용한 선박입니다.

- 액화천연가스 추진 벌크선 (LNG-fueled Bulk Carrier)
- 배터리 전기추진 여객선 (Battery-powered Ferry)
- 메탄올 추진 이중차원박선 (Methanol-fueled PCTC)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적용 어선 (Fishing Vessel with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친환경 선박의 주요 기술

Greenship Technology 친환경 선박 주요 기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해운업계에서도 친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환경 선박입니다. KOMSA는 친환경 선박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인증

<친환경 선박 인증>

친환경 선박 인증 관련 정보는 친환경 선박 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친환경선박.kr

친환경 선박 인증이란? (친환경 선박 인증 신청, 친환경 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 친환경 선박 기술지원 연계)

다음으로, 친환경 선박 인증 신청 자격을 알아보자!

신청자격

친환경 선박 인증 - 신청자격 -

-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화물운송사업
- 내항화물운송사업
- 유선사업
- 원양어업
- 도선사업
- 어획물운반업
- 해양폐기물관리업
- 예선업
- 양식업
- 해양환경관리업
- 항만운송사업
- 어업

위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인증제도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해양오염 저감기술,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등을 적용한 친환경선박에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법적 근거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목적 >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운-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 인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증제도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완료 후,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비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IP 사이트 및 KOMSA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평가 위원회가 개최되어 신청선박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완료 후 신청자에게 인증등급(1~5등급)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심사평가 기준 >
-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난이도 및 연료사용 비중
-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 선박에너지효율 설계지수의 초과 감축율
- 극산현율

심사 평가 항목은 좌측과 같으며,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을 받지 않는 대신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난이도 및 연료 사용비중의 배점이 가중됩니다.



SSS FORUM

해사산업의 희망찬 내일 '2024 한국해사주간' 성공리 개최 중소형 선박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다!

지난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나흘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 한국해사주간'이 개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4 한국해사주간'과 연계해 국제해사기구(IMO) SMART-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을 주최했다. 중소형 선박의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이번 행사는 해양안전의 미래를 더욱 밝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됐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해양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장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해사주간은 해운, 조선, 항만 등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력의 장이자 해양수산부의 대표적 행사다. 해수부 단일 행사로 진행됐던 이전과 달리, 올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하는 'SMART-C 콘퍼런스'와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을 포함해 부산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주관하는 15개 해사 분야 국제행사와 연계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양안전과 교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은 해양수산부, 중소조선연구원, 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의 참여가 높았다. 이로써 평소 중소선박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한 유관기관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다.

국내외로 크게 주목받은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은 해상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비협약 선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비협약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해 국제해사기구(IMO), 네덜란드 해양연구소(MARIN), 중국 해사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중소조선연구원(RIMS) 등 국내외 중소형 선박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협약 선박의 안전 및 기술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개최사에서 김준석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에 따라 IM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고, "중소선박은 등록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녹아 있다. 하지만 중소선박은 개별 소유주들이 지역적으로 넓게 산재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최근 국제 해운 산업의 주요 이슈인 탈탄소화나 디지털화 등 신기술의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번 포럼이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은 해상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비협약 선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비협약 선박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에 따라 IM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해양안전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 기대

이번 포럼은 해상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비협약 선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소 선박의 주요 선종을 어선·연안여객선·레저선박으로 구분해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비협약 선박(Non-SOLAS Vessels)은 안전과 관련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요트, 어선 등을 의미한다. 또한 해상 산업계의 주요 담론인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인적 요소와 결합되어 구성되었다.

세션의 첫 번째 순서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롭 그린(Rob Grin) 수석연구원이 '어선 안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접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주요 소형 어선인 빔틀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해양연구소 마린이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발표에 관심이 쏠아졌다.

두 번째 순서는 (주)삼우이머션 김대희 대표가 '새로운 트렌드의 리얼리티 테크와 어선 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삼우이머션은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멀티버스 기술 등을 개발해 해양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어선 안전의 최신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미래 해양안전의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수연 어선안전연구팀장이 '어선 설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 권수연 팀장의 발표를 통해 어선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결합이 된다면 해양 사고 예방 및 사고 저감에 있어 공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친환경 여객선의 기회와 위험', '레저선박의 안전 인식 제고'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은 중소선박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한 중소선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MINI INTERVIEW



한국해사주간운영TF팀 송태환 팀장

Q. 해사주간을 위해 TF팀이 구성되었는데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나요?
TF팀은 교통정책실, 운영지원실, 운항정책실, 검사기준실 등 7실 12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위한 기획운영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15개의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행사 구성, 현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연사 관리, 행사 전방 운영 등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Q. 해사주간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요?
선박 검사 및 운항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단이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공단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할 시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Q. IMO SMART-C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공단은 올해 'IMO SMART-C 프로그램'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SMART-C Women 대면교육'과 'SMART-C 콘퍼런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해사주간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분야 지식 증진과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4개 분야(Women, Traffic, Leaders, GHG)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구성해 약 50명의 국내외 참가자들과 IMO SMART-C 프로그램의 성과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해주세요.

IMO SMART-C 프로그램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지 3개월이라는 촉박한 기간 내에 교육과 콘퍼런스 2개의 프로그램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이 컸습니다.



한국해사주간운영TF팀 김지아 대리

Q. 중소선박 안전기술포럼에서 공단이 특별히 준비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국내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 외에도 해외 및 국제기구 출신 연사를 초빙해 '중소형 선박의 안전'이라는 테마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포럼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전해주시다면요?
여름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휴가로 장기 부재중인 해외 연사들이 많아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제협력 업무를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그램 세션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일이 재미있었고, 기존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도와주신 동료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커리어 발전에 좋은 자양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해사주간운영TF팀 김태환 대리



항구도시 여수의 바닷길을
더욱 안전하게, 더욱 빛나게!



여수지사



여수운항 관리센터

여수는 남해안 거점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항구와 어우러진 바다의 풍경 또한 낭만적이어서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미항(美港) 여수에서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그리고 여수운항관리센터를 찾아가 봤다.



여수지사

여수지사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여수 지역 어민들과 선주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여수 바다의 안전을 위해!

여수는 입·출항 선박에 급유하는 유조선과 선원 승·하선 교대를 위한 통선 등 일반선이 많은 편이다. 또한 화물선과 같은 국제협약 선박의 입출항도 잦다.

“저희 여수지사는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이 주축을 이뤄 검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를 포함해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일대의 선박검사를 담당하고 있죠.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실무원, 인턴, 공익근무 직원들은 사무실을 지키며 안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 업무만으로도 벅차지만, 고객과 소통하고 지역 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는 중이다. 주기적으로 해양안전캠페인 및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여객선 특별점검, 유관기관과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의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여수 바다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

더불어 살아가는 여수지사

지난해만 해도 20여 차례, 지역어촌계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실시해 관내 조선소 및 관련 업체를 방문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이 쌓인 덕분일까. 검사 현장에서 만난 대영중공업 울촌조선소 황태식 대표는 다방면으로 마음을 써주는 여수지사에 늘 고맙다고 말했다.

“저희 조선소는 보시다시피 400톤 이상의 유조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상으로는 광양에 위치해 여수지사에서 이동하려면 꽤 먼 거리인데요. 필요할 때마다 검사 요청을 하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와줍니다. 참 고마워요.”

남정식 지사장은 이런 선주들의 마음과 격려가 검사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끔은 검사원들이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역정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검사원들이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검사원들에게 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서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남정식 지사장의 바람대로 검사원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나은 현장,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런 소통과 팀워크로 최근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도 무탈하게 견뎌냈으니 우리 힘내서 가을, 겨울도 잘 견뎌내 봅시다!”라며 서로를 향해 외치는 다짐처럼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하는 여수지사가 되길 바란다.





여수운항관리센터

신기항, 백야항, 거문항, 엑스포항, 낭도항, 손죽도항까지 운항관리를 해야 할 파견지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자 노력한다.

대화 속에 싹트는 동료애

“여수는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봄에는 짙은 안개, 겨울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여객선 출항 통제가 잦은 편이예요. 그렇기에 근무자들끼리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수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은 파견지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다르지만, 소통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늘 함께 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이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소통 회의’ 덕분이기도 하다.

“매달 소통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전 직원이 함께 센터 사무실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진한 업무 상황, 해결해야 할 이슈, 점검 사항 등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업무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다. 식사나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요즘 근황 등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진다. 이로 인해 여수운항관리센터는 어느 센터보다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이 났다. “선호도 조사를 하면 여수운항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직원들이 많아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좋은 게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웃으면서 함께하는 신나는 일터

여수운항관리센터는 좋은 분위기를 원동력으로 즐겁게 일하는 중이다.

“도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에 실시간 운항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여객선 항로 및 기항지의 위해 요소를 발굴, 개선 제거하는 일도 해요.” 많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다. 최근에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여객선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거문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추석 특별 수송기간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여름은 너무 더워서 안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고생했다며 손을 흔들어 줄 때마다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행복감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운항관리자들끼리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달려온 결과 여수운항관리센터는 경영평가 1위라는 좋은 성과를 맞이하기도 했다.

박요선 센터장은 이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해줘서 센터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웃음 넘치는 여수운항관리센터 함께 만들어 나갈시다!”

운항관리에 나서기 전에 주요 점검 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체인상태, 클러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요!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살펴보고 누유 여부와 절연 저항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객실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소화 장비도 체크체크!



조타실에서 선장님과 함께 항해통신장비 점검을 마치면 오늘의 운항관리 끝!



가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칭찬의 마법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이 풍요로움에 정점을 찍을 기분 좋은 칭찬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동료를 생각하는 KOMSA인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칭찬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걸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따뜻한 가을 보내세요.

To.
 기획조정실
김주환 대리

정신없이 바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언제나 차분함을 잃지 않는 김주환 대리를 칭찬합니다. 타 부서에서 자료 공유 요청을 하거나, 협업해야 할 때 차분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From.
 성과혁신실 **김준연 대리**

To.
 통영운항관리센터
조현빈 대리

신규직원 입문 교육을 마치고 통영으로 첫 발령을 받아 잔뜩 긴장한 저에게 많은 분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조현빈 대리님은 숙소 입주부터 현지 적응까지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은 통영에서의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대리님을 본받아 저도 후배가 생기면, 세심하게 살피고 귀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From.
 통영운항관리센터 **홍준혁 주임**

To.
 운영지원실
권강 환경관리원

늘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님 덕분에 매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저 또한 동참하겠습니다.

From.
 중부지사 **박화호 대리**

To.
 안전연구실
백소연 주임

항상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연구실 백소연 주임을 칭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주임님 덕분에 팀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서로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일하는 주임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

From.
 안전연구실 **송제하 과장**

Dear
 My Colleague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나는야 KOMSA 연구원

허세 제로! 솔직한 윤숙이는



윤슬처럼 빛나게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요

해양안전실 허윤숙 주임연구원

ESTJ

효율적인 주ंच자



-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사고
- 정직하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
-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림
-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 책임감이 강함
- 열린 의사소통 선호
- 끈기 있게 일을 추진

Q___ KOMSA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2021년 12월에 입사해서 해양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해양사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 해양사고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업무 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Q___ KOMSA에 입사한 계기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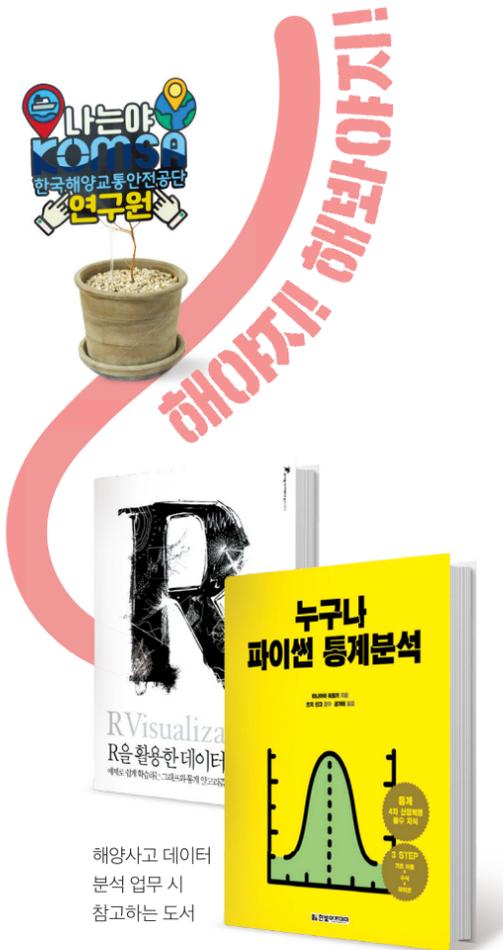
제가 이전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과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지금까지의 근무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KOMSA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Q___ 해양안전실의 근무환경은 어떤가요?

함께 근무하는 선후배 연구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해양안전실은 해양사고예방, 해양안전문화, 바다내비단말기보급, 디지털융합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자의 파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로 전공, 경력, 직렬 등이 다른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는 곳이에요.

Q___ KOMSA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모든 점이 좋아요. 하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기관에서 제 전공에 대해 인정받으면서 전문가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이나 정보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회사에서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Q__ 연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 집중했던 일은 해양사고 중 사고빈도가 높은 기관손상사고에 대한 연구입니다. 선종별, 톤급별, 지사별, 제조사·모델·마력 등에 대한 사고 발생 현황, 주요 사고원인과 손상부위, 재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연구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손상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기관손상사고 저감을 위한 엔진정비 동영상 촬영, 포스터 제작 등에도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안전사고, 전복·침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의 설비·구조에 대한 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박사고의 상세한 발생 원인을 찾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__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동시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해양사고 데이터 분석과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Q__ 근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콘서트, 뮤지컬, 연극, 서커스, 마술쇼 등의 공연을 관람하는 걸 좋아해요. 특정 공연을 찾기보다는 세종에서 진행 중인 공연 위주로 찾아봅니다. 문화 공연을 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Q__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나요? 저는 요즘 두바이 초콜릿에 빠졌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서 먹었는데, 점점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해외사이트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보고 있어요.

Q__ 후배에게 연구원으로서 조언을 해주세요.
 아직 저도 배우고 있어서 미래의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게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말해주고 싶은 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한다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결과를 얻게 될 테니까요.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해요. "해야지! 해보아야지!"라고요. 그럼 신기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



깊숙이 들어갈수록,
매력이 깊어지는

가을날의
돌산도

망설이다가는 놓치고
말 것이다.
찰나의 순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가을의 조각들을.
더 늦기 전에 이 계절의
절정을 마음껏 담아보자.
가을빛을 머금은 잔잔한
돌산도의 풍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Autumn

화려한 불빛이 일렁이는
 여수 밤바다도 좋지만,
 울가을 조금은 조용하고,
 서정적인 풍경의 바다를 찾고 싶다면,
 돌산도를 가보는 것도 좋겠다.

Dolsando



화려함 속에 감춰진 소박한 풍경

여수는 워낙 항구의 경관이 아름다워 '미항 여수'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특히 밤에 보는 여수 밤바다의 풍경은 가을의 낭만을 더욱 배가 시킨다. 오죽하면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나왔을까. 화려한 불빛이 일렁이는 여수 밤바다도 좋지만, 울가을 조금은 조용하고, 서정적인 풍경의 바다를 찾고 싶다면, 돌산도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10번째로 큰 섬이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작은 섬마을의 모습을 간직해 소박한 매력이 있다. 1984년 12월에 준공된 돌산대교를 통해 차로 갈 수 있어 접근성도 좋다. 여수 야경의 성지로 손꼽히는 돌산대교가 끝나는 지점부터가 돌산도다. 초입에는 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오션뷰 카페가 여럿 줄지어 있어 섬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안쪽으로 가다 보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조용한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 풍경이 스치는 순간 비로소 '여기가 섬이구나'라는 게 실감 난다.



돌산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넓기에 다 돌아보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하지만 해안도로를 타고 차로 여행하면 가능하다. 방죽포 해수욕장, 향일암, 은적암 등의 명소부터 뱃길을 준비하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담긴 항구까지 넉넉히 2시간을 잡으면 둘러볼 수 있다.

더위가 사그라든 가을은 차를 타고 돌산도를 한 바퀴 돌아보기에 제격이다.

해안도로 여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평사리는 '안굴전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진 어촌 마을이다. 마을 앞 대미산에 긴 굴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굴전마을이 생기고, 굴전마을 바닷가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굴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굴이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착각하기도 한다고. 마을 앞 바다에 상징처럼 솟은 굴 양식장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 굴 양식장이 주는 묘한 분위기 때문에 사진가들에게는 일출, 일몰 스폿으로 소문이 났다.



무슬목 해변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로 잘 알려져 있다. 해송 숲과 몽돌밭 너머로 나란히 자리 잡은 혈도와 죽도가 이곳만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가을빛 담은 잔잔한 풍경들

안골전마을을 지나면 무슬목 해변이 나온다. 무슬목 해변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로 잘 알려져 있다. 해송 숲과 몽돌밭 너머로 나란히 자리 잡은 혈도와 죽도가 이곳만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다. 한적함을 즐기며 산책을 즐기기도 좋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도 좋을 만큼 분위기가 좋다.

무슬목 해변이 산책하기 좋다면, 돌산도 동쪽 해안에 향아리처럼 오목하게 자리 잡은 방죽포 해변은 파도가 세지 않고 수심이 낮아 물놀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조선시대에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둑으로 둘러막고 방풍림을 조성했는데,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수욕장이 되었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해변의 풍경을 더욱 정겹게 만들어 준다. 물론 낚시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다. 방죽포 해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방파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장어, 돔, 노래미 등을 잡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각각의 매력이 다른 두 해변을 지나 더욱 깊은 곳까지 달려본다. 그러다가 빨간색 돌산항등대가 눈에 띄어 잠시 멈췄다. 작은 듯 보이지만 돌산항은 갯 잡은 활어를 도매하는 활어 위판장으로 이름났다. 이른 새벽에 찾으면 싱싱한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치열한 풍경을 볼 수 있다. 해 질 무렵에는 더없이 조용하지만, 그래서인지 항구 주변의 풍경에 더욱 눈길이 간다.

돌산항에 머물렀다가 나오는 사이 안골전마을에 질게 깔린 낙조에 다시 시선을 빼앗겨 한참을 바라봤다. 가히 여수 밤바다의 화려함에 뒤지지 않을 풍경이다. 어쩌면 가을이 깊어질수록 여기서 마주한 노을빛 바다가 그리워질 것만 같다. 🌍



조용히 둘러보기 좋은 돌산도 해안도로 추천 코스



안골전마을(평사리)

무슬목 해변

방죽포 해변

돌산항

항대방파제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대 이야기!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 색깔도, 모양도 다양해서 바다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런 등대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는데...! 등대 속에 감춰진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LIGHTHOUSE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는? 🔍

우리나라에는 많은 등대가 존재합니다. 그런 등대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등대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문화연구소와 섬투데이가 조사한 결과 울산간절곶등대, 호미곶등대, 독도등대, 속초등대, 울릉도등대 등이 가장 아름다운 등대로 소문났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한 등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등대가 정말 많아요!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정하고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등대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고 싶다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등대가 궁금해! 🔍

우리나라에 등대는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바로 대한제국 때입니다. 1903년에 인천의 팔미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네요. 팔미도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6·25전쟁의 국면을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등대가 이런 역할이었다고? 🔍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대의 역할이 바다를 비춰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실, 등대는 '나 여기 있다'라고 항로를 지나는 배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즉!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오지 말라'고 알리는 신호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입항할 때 접근하면 안 되는 위치, 항구 방파제의 입구 쪽 끝을 표시해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록달록 등대 색깔 다 이유가 있다! 🔍

등대는 보통 빨간색과 녹색, 흰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도로 위의 신호등과 비슷한 색깔이죠? 맞아요. 등대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처럼 바다의 항로를 색과 모양, 불빛으로 안내해 줍니다. 보통은 빨간색과 녹색 항로표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빨간색 등대가 하는 말 🔍

빨간색 등대는 바다에서 항구를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왼쪽으로 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녹색 등대가 하는 말 🔍

녹색 등대는 빨간색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방파제와 함께 있다면, 녹색이 아닌 흰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녹색과 빨간색이 나란히 있다면? 🔍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라는 소리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하. 전~혀 아닙니다. '이 사이로 지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노란색 등대는? 🔍

흔히 보기 어려운 노란색 등대! 노란색 등대가 보인다면, 주변에 암초나 장애물이 많아 해상 충돌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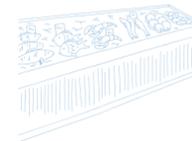
여수수산물시장에 살짝 반했어 나

여수수산물시장

큰일이다. 자꾸만 반해서. 사랑이란 게 이런 마음일까.
싱싱함에 한 번, 사르르 녹는 맛에 한 번, 마음씨 좋은 상인들에게
또 한 번!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뵈다 하는
여수수산물시장 다녀온 썰 푼다!



여수의 자랑이여라



여수 연안 여객선터미널 앞에는 여수를 대표하는 여수수산물시장이 있다. 접근성이 좋은 덕분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여수에 도착하면 꼭 들르는 관광코스도 자리 잡았다. 물론, 여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1968년에 개장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니, 여수의 역사이자 자랑거리인 셈. 수산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객행위가 없는 명품 수산물 전통 시장'으로 통한다.

직접 방문해 보면 그 이름값이 실감 난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호객행위가 없고, 손님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손님들의 질문에 하나, 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손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라고 말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여수수산물시장 상인들은 2017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봐야만 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인 시장이 복구되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지금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뿐 이란다.

이렇게 싱싱한데 안 먹고 가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야에 들어오는 각종 해산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층은 활어판매장이 중심에 있고 양옆으로 건어물과 젓갈류를 판매하는 매대가 있다.

활어판매장에는 광어, 돔, 장어, 낙지, 해삼, 멍게 등이 놓여 있고, 가을 제철을 맞아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전어도 있다. 여수수산물시장에 오면 보통 여름과 초가을까지는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를 많이 먹는다고 한다. 갯장어는 사부사부로 먹으면 맛이 좋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는 보통 구이로 많이 먹는데, 별미인 전어회도 꽤 인기라고.

사실 어느 점포에서 구매해도 신선함과 친절함은 기본이기에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다. 먹고 싶은 해산물을 고르기만 하면 상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서 식당으로 가져다준다. 1층에도 자리를 잡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지만, 2층 식당은 깔끔하고 넓은 데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전라도 특유의 맛있는 밀반찬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고 싶다면, 2층으로 향하자.



전어회



여수수산시장은 손님이 직접 고른 횡감을 계량하고, 회 뜨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가을에 여수에 왔다면

꼭 먹어보드라고~



전어

가을은 전어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어의 잔가시가 연해지고 기름기가 생기면서 살에 탄력이 붙어 고소함이 절정에 이른다. 가을이면 여수수산시장은 전어를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조금 색다르게 맛보고 싶다면 전어회를 추천하지만, 전어회가 낯설다면 전어회무침을 추천한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굴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불리며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굴. 특히 여수에서 생산되는 굴은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라 씨알이 굵고 푸짐하다. 여수는 특히 굴구이가 별미! 돌산도 해안가로 가면 바로 구워 뜨끈하고 통통한 굴구이를 즐길 수 있다.



올가을엔 여수수산시장이다!



여수수산시장을 꽤 찾았는지 익숙하게 해산물을 고르고, 횡감을 기다리는 한 손님에게 여수수산시장의 매력을 물었더니 망설임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신선하고 안전해요. 여수시에서 주기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패류나 조리 기구 세척 여부, 횡감용 칼·도마 구분 사용, 수족관 물 수시 교체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요." 실제로 여수수산시장은 손님이 직접 고른 횡감을 계량하고, 회 뜨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도마 세척과 장갑 교체는 일상이다. 청결함을 기본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상인들의 신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어떨까. 이만하면 여수 여행 제1코스로 여수수산시장을 넣어볼 만하지 않은가! 올가을, 여수수산시장에서 제철 해산물 맛보고, 여수 밤바다에서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여행이 될 것이다. 🌊

남해, 은빛 물결이 출렁이네
멸치, 내 입맛이 살아나네

미조식당



쪽빛 바다를 품은 남해. 멸치로 가득한 바다는 은빛 물결로 출렁인다. 구호에 맞춰 그물을 끌어 올릴 때마다 은빛 자태를 뽐내며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멸치들. 이곳에서만큼은 식탁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미조식당 0507-1401-7837

그거 알아? 남해는 멸치가 대세래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해산물 중 하나인 '멸치'. 4,000~5,000개의 알을 품고 사는 어종이라 한겨울을 제외한 1년 대부분을 산란할 정도로 풍어의 상징이다. 이름의 유래는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전의 저술서 <자산어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멸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불품이 없어서 '업신여길 멸(蔑) 자'를 쓰기도 하고, 그물로 잡아 올린 멸치가 바로 죽어버려 '멸망할 멸(滅) 자'를 쓰기도 한다.

멸치를 먹으러 남해까지 갈 일인가 싶겠지만, 성질이 급해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탓에 싱싱한 멸치를 맛보려면 멸치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남해 최남단에 위치한 미조항은 바다의 진미 멸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붐빈다. 최근 방송 중인 예능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멸치털이 장면이 방송되면서 더욱더 남해 멸치의 인기가 뜨겁다.

멸치로 한상차림

남해 미조항은 멸치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맛보고 싶다면, 미조식당으로 가보자. 3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온 사장님은 싱싱한 남해 멸치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식재료를 섬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사용한다. 고춧가루나 고춧장도 국내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쓴다고 맛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식당의 대표 메뉴는 멸치회와 멸치쌈밥, 멸치튀김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세트메뉴. 어느 하나 고르기 힘든 손님을 위한 사장님의 배려다.

멸치쌈밥, 멸치회무침, 멸치튀김이 줄줄이 나오고, 다양한 반찬들로 채워진다. 상다리 부러지는 푸짐한 한 상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 특히 멸치의 크기에 놀라게 된다. 남해에서는 씨알이 굵고 긴 대멸 중에서도 머리가 통째로 붙어있는 옷장멸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커다란 옷장멸치로 조리한 요리이기에 맛이 더 기대될 수밖에.

가장 먼저 맛볼 요리는 '멸치쌈밥'. 통멸치와 고춧가루, 마늘, 시래기 등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멸치찌개에서 멸치를 건져 쌈밥처럼 싸 먹는 남해의 토속음식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멸치살에 칼칼한 양념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멸치회'는 멸치를 미나리, 양파, 상추 등 각종 채소와 함께 초고추장으로 버무린 무침인데, 새콤달콤해 입맛 돋우기에 제격이다. '멸치튀김'의 걸바속촉 식감은 물론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한번 맛본 사람은 젓가락을 멈추기 힘들 정도다.



- #사시사철 즐기는
- #남해 별미
- #멸치회와 멸치쌈밥
- #남해군 토속음식



KOMSA NEWS

AUTUMN 20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요 소식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 제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교통 안전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해 바다내비를 통해 송출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를 위해 공단은 본사 스튜디오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해양안전 캠페인 ▲해양교통정보(해양사고 속보 등) ▲바다날씨 정보 ▲해양 안전문화 정보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바닷가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선박에 설치된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콘텐츠 청취가 가능할 예정이다.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 전년 대비 12% 증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동안 연안여객선 이용 인원이 총 89만 1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이용 인원보다 12% 늘었다고 밝혔다. KOMSA는 이번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을 대비해 기관손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객선에 선적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공단은 하계 휴가철 기간 누리집과 지역 운항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여객선 입·출항 전후 시간대의 여객선터미널 혼잡 상황과 여객선 승선 대기 차량 현황 등을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해 제공했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BMEA)과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지원’ 협력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BMEA)과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신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을 통한 민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각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를 통한 신제품 및 기술 개발 기반 마련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선박 탑재 물품 조사와 조달 관련 업무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철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주의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가을철 다중이용선박을 통한 낚시, 섬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다중이용선박 1,746척 중 38.2%(667척)가 가을철(9~11월)에 발생했다. 가을철 발생한 주요 사고유형은 ▲기관손상(33.4%) ▲충돌(18.3%) ▲부유물감김(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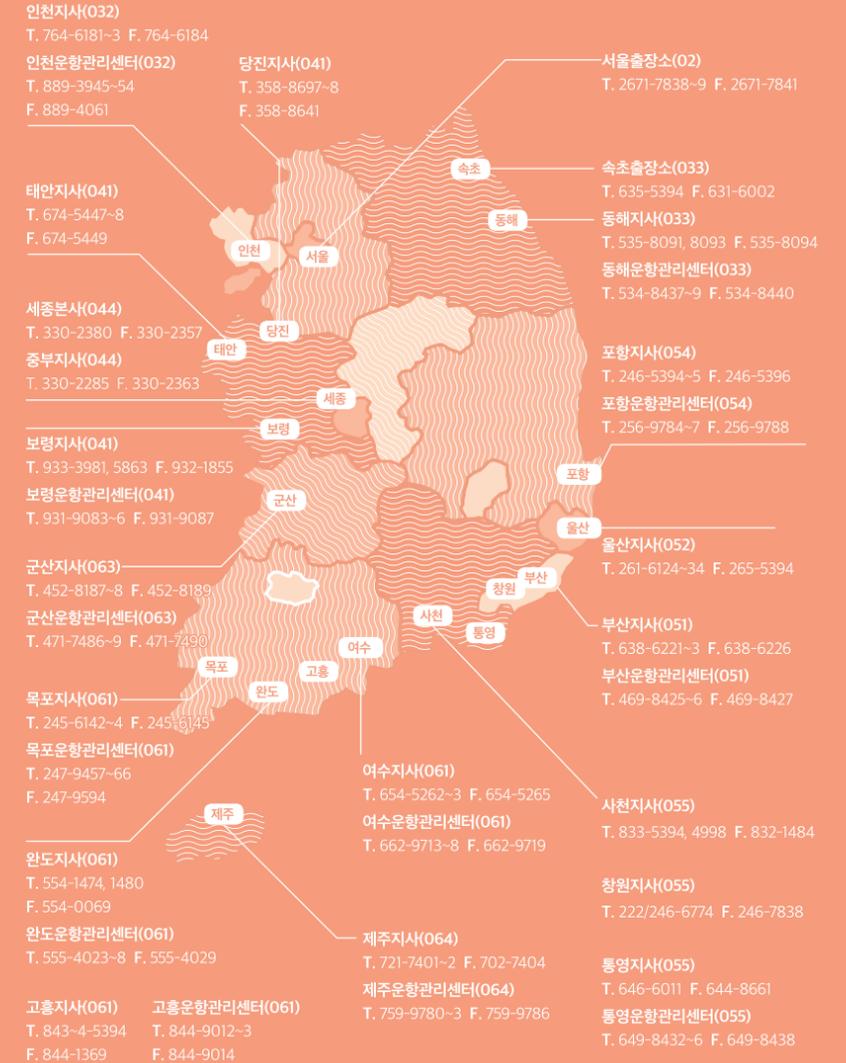
044) 330-		
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경영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해양교통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기술연구소장	T.2550	F.2352
안전연구실	T.2450	F.2461
선박탄소중립실	T.2556	F.2366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미래사업실	T.256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1~2277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본사로 오시는 길



해안선 뉴스레터

구독하고

선물 받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지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2 우측 상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3 개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4 구독 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 (※ 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참여기간

2024년 10월 30일(수)까지

당첨인원

10명(랜덤 추첨)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해안선>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계간으로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들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MTIS 모바일 앱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



안전한 바닷길 정보는 이제 해양교통안전정보 (MTIS) 앱으로 확인하세요!

※ 해양교통안전정보 앱에서는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와 해양사고 현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벤트기간

2024. 9. 13. (금) ~ 10. 31. (목)

당첨자 발표

2024.11.11. (월) ~ 11.15. (금)

※ 이벤트 응모 시,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적으로 경품 발송

참여방법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 다운받고,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모해주세요

이벤트1 대국민 대상 MTIS 이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참여하고 이벤트 참여를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응모 완료~!

01 네이버폼 만족도 조사 참여



02 무작위 추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 기프트콘 지급 (100명)



이벤트2 선박 소유자 대상 기관손상 자가점검표 우수 사용자 선정

MTIS에 로그인하여 '우리 선박관리' 서비스에서 기관손상 자가점검표 작성해 주시면 응모 완료~!

01 MTIS 접속

웹사이트 ① 스스로 관리하는 해사안전 → ② 우리 선박관리 → ③ 해양사고 내 기관손상 사고건수 → ④ 엔진점검 바로가기 → ⑤ 점검표 작성

모바일 ① 우리 선박관리 → ② 전주기이력 → ③ 해양사고 내 기관손상 사고건수 → ④ 엔진점검 바로가기 → ⑤ 점검표 작성

02 네이버폼 ※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셔야 응모가 됩니다.

기관손상 자가점검표 작성이력 확인을 위한 필수입력정보 기재 (MTIS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휴대전화번호 및 대표소유선박번호 등)



기관손상 자가점검표 누적 작성횟수별 경품 차등지급

- 1등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지급 (1명)
- 2등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지급 (1명)
- 3등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지급 (1명)
- ※ 1~3등 당첨자 경품 발송은 개별 연락 후 수집된 주소로 지류형 상품권(1만원 권 날장 구성) 발송 예정
- 4~50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 기프트콘 지급 (47명)
- ※ 누적 작성횟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시고 해수호가 드리는 상품권 및 기프트콘 받아주세요!



유사 의항

· 소득세법에 의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과과금은 주최 측에서 납부합니다. (단, 1~3등 당첨자에 한하여 기타소득 세금 신고를 위한 신분증 스캔본을 수집합니다.)

· 이벤트 응모 시, 제출된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경품 발송이 진행됩니다. · 잘못 작성된 휴대전화 번호 및 소유선박번호로 인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 되지 않으며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잘못 작성된 주주소로 인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 되지 않으며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경품 중복 당첨 시, 경품은 휴대전화 번호 1회 지급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이벤트 경품 발송으로만 사용되며, 경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경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품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 : 디지털디블유 / 수탁업무 : 경품발송업무 / 재공범위 :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선박번호 등)